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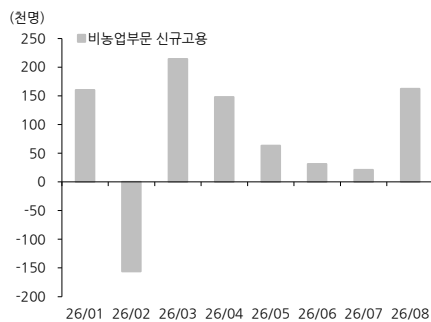
Macro Review

8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뒤에 숨은 둔화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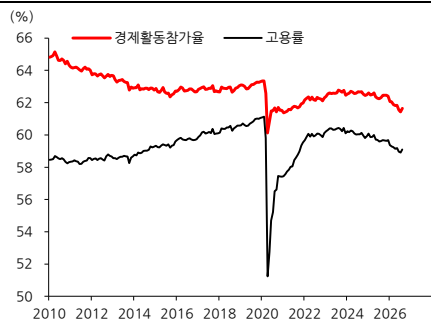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8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6.2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0.2%p 상승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완만한 고용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지표에서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구인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 침체 가능성은 낮지만,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농업부문 고용 예상치 상회

8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16.2만 명 늘어나며 예상치(+5.5만 명, Bloomberg 기준) 상회. 6월과 7월 고용도 상향 조정. 여가/숙박(+6.2만 명)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 고용이 개선됐고, 건설업(+2.2만 명) 고용도 늘어났음. 정부(+3.5만 명) 고용 또한 지방정부 중심으로 증가

실업률은 4.1%로 전월대비 보합,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0.2%p 상승. 풀타임 취업자가 전월대비 73.5만 명 늘어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55.1만 명 감소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3.1%) 상승. 금융업(+0.8%)과 운송/창고업(+0.4%)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서비스업 임금 상승 압력 확대. 주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6% 상승

노이즈를 제거하면 고용 둔화

완만한 고용 둔화 이어질 전망. 금번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7월 쇼크 이후 여가/숙박업의 되돌림과 지방정부 교육 부문의 회계상 정상화를 감안해야 함. 여가/숙박과 정부를 제외한 고용(+6.5만 명)은 최근 3개월 중 가장 약했음. 금융업 등 고임금 일자리가 대체로 줄어든 가운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도 재차 감소. 장기(27주 이상)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실업기간(26.3주)이 올해 가장 길어진 것도 구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시사. 기업들의 보수적인 채용정책이 이어지며 노동시장의 활력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음

다만 고용 침체 가능성은 낮음. 풀타임 취업자 증가와 비경제활동인구 복귀는 무난한 구직여건을 반영. 구직단념자가 감소하면서 광의의 실업률(U-6)도 올해 가장 낮은 수준(7.7%) 기록. 고용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편이나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우려할 정도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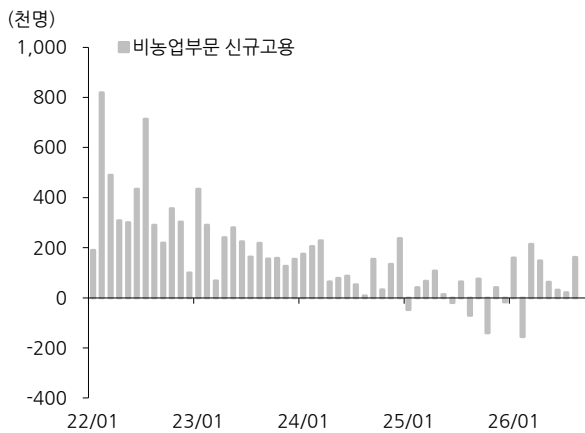
[표1] 미국 고용보고서 요약

(천명, %)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농업 신규고용	-140	41	-17	160	-156	214	148	63	31	21	162(△)
민간	13	72	-7	180	-148	202	150	61	26	71	127(△)
상품	-20	25	-21	45	-21	33	6	3	14	29	41(△)
서비스	33	47	14	135	-127	169	144	58	12	42	86(△)
정부	-153	-31	-10	-20	-8	12	-2	2	5	-50	35(△)
실업률		4.5	4.4	4.3	4.4	4.3	4.3	4.3	4.2	4.1	4.1(-)
경제활동참가율		62.5	62.4	62.1	62.0	61.9	61.8	61.8	61.5	61.4	61.6(△)
고용률		59.6	59.7	59.4	59.3	59.2	59.1	59.2	59.0	58.9	59.1(△)
시간당 평균임금	3.9	3.9	3.7	3.7	3.7	3.4	3.6	3.3	3.4	3.2	3.1(▽)
제조업	4.3	4.3	4.4	4.2	4.3	3.6	4.3	4.0	3.9	3.8	3.8(-)
서비스업	3.9	3.9	3.7	3.6	3.6	3.3	3.4	3.1	3.2	3.0	2.9(▽)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전치 대비 상승(△), 하락(▽),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6.2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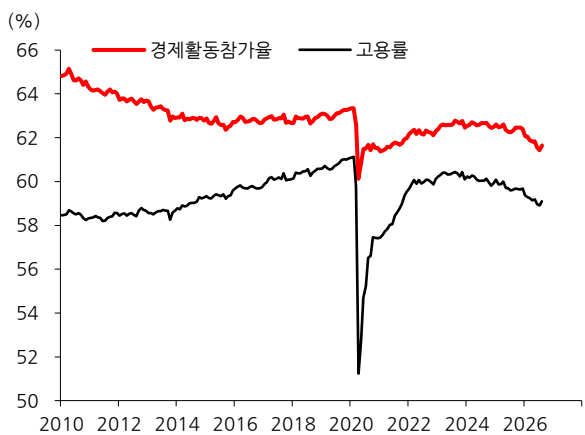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0.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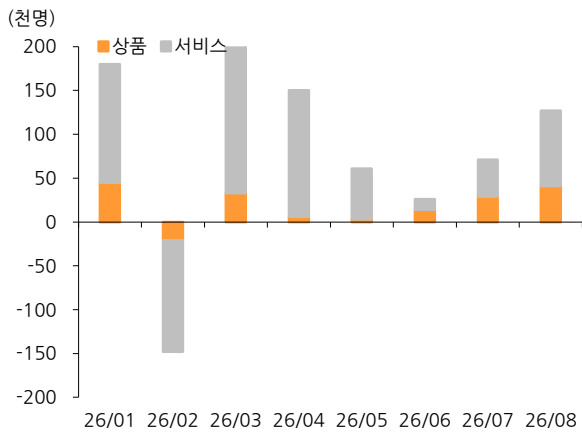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 압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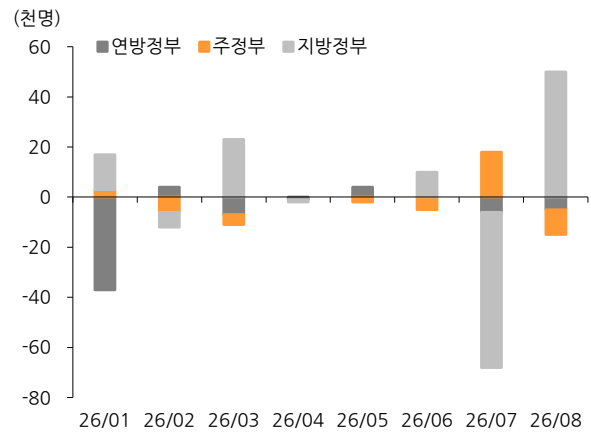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민간: 전반적으로 고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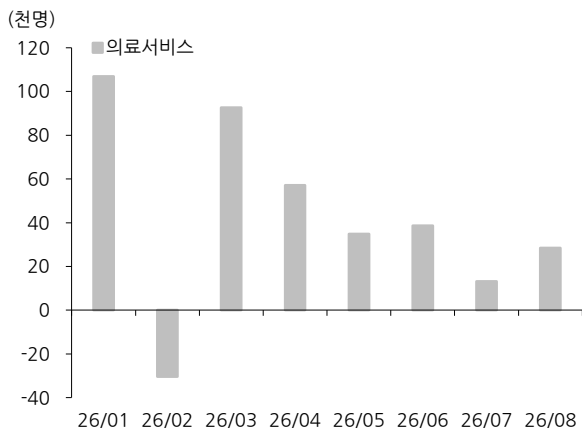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정부: 지방정부 고용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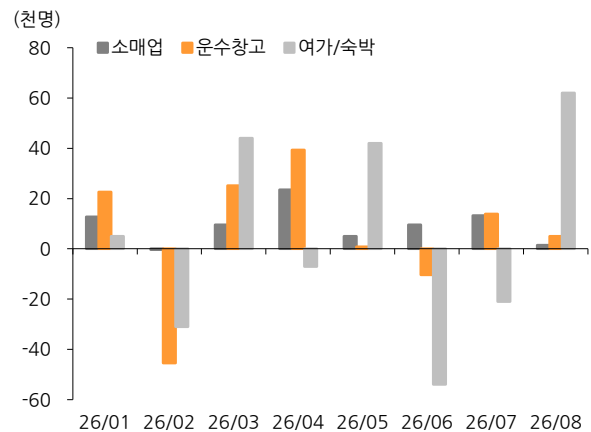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의료서비스 신규고용이 확대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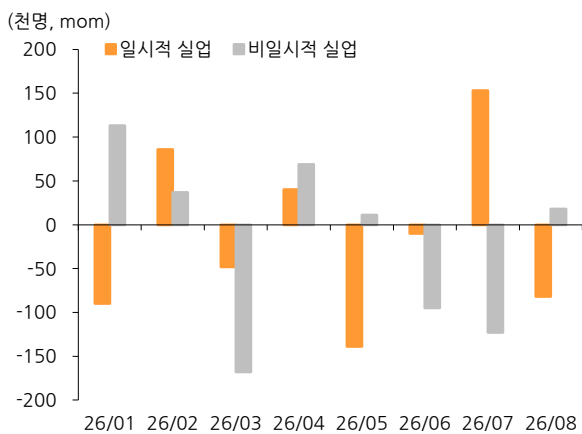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여가/숙박 고용도 크게 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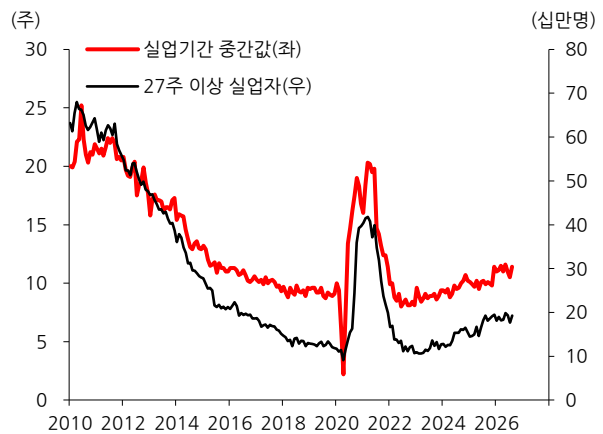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일시적 실업 감소 vs. 비일시적 실업 증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장기 실업자는 전월대비 증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